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의 전략적목표

김 광 의

오늘 우리앞에는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 시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고 생산과 경영활동에 정보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사회주의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의 전략적목표는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인화하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8페이지)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의 전략적목표는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인화하는것이다.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인화하는것은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세계경제발전동향에 맞게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세계적으로 자동화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을 비롯한 최신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생산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가 적극 추진되고 그 결과 유연생산체제와 통합생산체제가 출현하여 널리 도입되고있다.

유연생산체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제품이 달라지면 기대배치와 지구, 공구 등을 바꾸어야 하였으며 따라서 제품을 갱신하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부족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유연생산체제이다.

유연생산체제는 가공프로그램만 변화시키면 임의의 부분품을 가공할수 있는 CNC기계, 프로그램에 의하여 소재를 설치하고 운반하는 무인운반차, 반제품을 보관할수 있는 자동창고, 기대와 무인운반차, 자동창고를 조종하는 종합조종반, 운영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자동화수준이 높은 생산체제이다.

유연생산체제는 한대의 CNC기계와 로봇트, 소재적재장치, 종합조종반으로 이루어진 유연생산세포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대의 CNC기계로 이루어진 유연생산흐름선, 유연생산직장, 나아가서 유연생산공장으로 발전하고있다.

현시기 통합생산체제를 개발구축하여 기업관리를 개선하는것이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통합생산체제는 컴퓨터기술에 기초하여 제품의 설계와 생산, 경영관리를 통합함으로써 기업관리의 효과성을 최대한로 높일수 있게 하는 생산체제이다. 통합생산체제는 생산과 경영관리에서 정보통합을 실현함으로써 생산조직과 지휘를 개선하고 생산의 효과성을 최대한로 높이며 경영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각종 경영자원을 최량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다.

통합생산체제의 중요구성부분은 설계지원체제, 기술공정조종체제, 생산관리체제, 경영정

보체계이며 그것들은 컴퓨터망과 자료기지에 의하여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로 통합된다.

세계적인 경제 및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맞게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자면 유연생산체계, 통합생산체계와 같은 첨단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공정의 자동화, 지능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인화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의 전략적목표를 점령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새 세기 산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하고 모든 부문을 첨단수준에 올려세우는것이다.

새 세기 산업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고 지식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기본열쇠이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고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건설할수 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치자면 모든 부문에서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우주를 정복한 위성과학자들처럼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문제해결에서 가장 걸린 문제, 가장 큰 실리를 보장할수 있는 문제를 종자로 선택하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종자론을 틀어쥐고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나라의 경제를 빠른 기간안에 현대화, 정보화할수 있다.

통합생산체계와 무인조종체계를 확립하고 룝색생산방식을 비롯한 앞선 생산방법을 받아들이며 중요한 경제기술적지표들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고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화하는데서 남의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의 설비를 그대로 가져다놓는 현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력량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에 의거하는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자체의 과학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교육기관의 과학자, 연구사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설비와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며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더욱 다지고 설비와 생산공정을 부단히 갱신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의 전략적목표를 점령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것이다.

현시기 경제발전에서 과학과 기술의 역할이 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과 생산이 밀착되고 일체화되는것이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추세로, 현대산업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이자 생산이고 생산이자 과학기술이라는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지식경제강국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지식경제의 하부구조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모든 부문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과 기술, 지식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과 기술관리공정을 개발창조형으로 전변시켜야 한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작성과 수행정형을 국가적으로 장악지도하고 추진하는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한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으로부터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과 경제를 통일적으

로 지도관리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현실적으로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선정하고 연구완성하는데로부터 그것을 생산에 받아들여 은을 내게 하는데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수 있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과학기술의 보급과 도입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며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인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보급망을 형성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이 중앙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전당과 망으로 연결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며 그들이 해당 단위의 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새 기술개발과 도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질수 있게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과학기술 개발력량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을 강화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과학기술을 떠나서는 생산을 발전시킬수 없고 경제건설에서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는 관점과 립장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의 전략적목표를 점령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첨단기술산업을 대대적으로 창설하는것이다.

정보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은 사회경제발전에서 중추적역할을 하고있는 기술집약형산업이며 지식경제의 기둥이다.

첨단기술산업은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생산장성속도와 수익성이 높고 다른 경제부문에 주는 영향이 큰것이 특징이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첨단기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틀어쥐고 그 발전에 국가적 힘을 넣고있다.

세계경제발전의 추세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고 지식경제를 건설하자면 첨단기술산업을 대대적으로 창설하여야 한다.

우선 첨단기술산업화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라 첨단기술산업화계획을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워야 한다. 첨단기술산업화계획을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구조를 완비하고 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을 보장하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첨단기술산업화계획을 바로세우는것과 함께 그것을 단계별, 대상별로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또한 정보산업, 나노산업, 생물산업과 같은 첨단기술산업을 대대적으로 창설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첨단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추적역할을 높여나가야 한다.

첨단기술산업을 창설하기 위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며 그 효과성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력량이 집중되어있는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에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꾸리고 잘 운영하여 과학기술적으로 가치있는 제품들을 생산하며 그 성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보산업과 생물산업, 우주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의 작용과 역할을 높여 모든 경제부문에서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 기술적구조를 개선하며 전반적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여야 한다.

또한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핵심기초기술과 새 재료기술, 새 에너르기기술, 우주기술, 핵기술과 같은 중심적이고 견인력이 강한 과학기술분야를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새로운 첨단과학기술부문의 연구기관들을 조직하여 핵심적인 과학기술연구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도록 하며 대학들이 첨단과학기술개발에서 선도적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쳐 모든 부문을 첨단수준에 올려세움으로써 하루빨리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켜야 할것이다.